

## 예비 졸업 사정 시행 안내

대상자 :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 대상자  
기간 및 방법 : 예비 졸업 사정 기간 - 2015. 10. 01.(목)~2015. 10. 8.(목)  
졸업대상자 확인 기간 - 2015. 10. 05.(월)~2015. 10. 8.(목)  
※ 기타 졸업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및 후마니타스 칼리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명예 평화학 박사 수여

우리대학은 'Peace BAR Festival 2015'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故 바츨라프 하벨(V clav Havel, 1936~2011) 전 체코 대통령에게 명예 평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바츨라프 하벨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그의 업적을 높이 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관련기사 8면)

## Newsmaker

교육부 BRIDGE 사업선정  
산학협력단장 조민형(생체의공학) 단장



## “애써 개발한 기술, 사장되지 않게 실용화에 힘쓰겠다”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이하 BRIDGE) 사업'에 선정됐다. 'BRIDGE'는 '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의 줄임말로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내 대학의 연구성과는 사업의 잠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주변 기술과의 협력 부족, 사업화를 위한 자금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이러한 '데스밸리 Death Valley\*' 현상을 해결하고자 창의적 자산의 시작품 제작 등 기술 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BRIDGE 사업 선정,

### 2018년까지 매년 5억원씩 지원

이에 산학협력단 조민형(생체의공학) 단장을 만나 앞으로 자금의 사용과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일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산학협력단 조 단장은 "우리학교는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이 특허들이 실용화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자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됐다"며 사업 지원 배경을 밝혔다. 우리학교는 이번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단독으로 지원해 선정됐다. 조 단장은 "우리학교에 우수한 교수들이 많고 보유한 특허도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Death Valley  
기술이전 받은 후, 연구력 및 추가 개발비 부족으로 이전기술의 사장 또는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

## “밖에 나가 일하는 여자, 이기적인 여자?”

서울캠 후마 교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지속…학생들 “집에서 애나 보라’소리 들으러 학교 온것 아냐”

### 교수의 부적절 발언논란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김규래 기자 rlarbo41@khu.ac.kr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한 배분이수교과 강의에서 A교수가 봉건적 성역할에 기반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해 과문이 일고 있다.

A교수는 140여 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여자들은 집에서 애를 보지 않고 금테 안경 끼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이며, 그 순간부터 그 애들 인생은 망한 거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남성성'이지 여성이 할 일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낀 수강생들의 제보를 통

해 전해졌다. <관련기사> 서울캠 후마 A교수, 강의 중 부적절 발언 / 대학주보 온라인 참고>

A 교수의 강의를 수강 중인 B학생은 "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학생'이고, 그 꿈들을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A 교수는 단지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노력과 꿈을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일'이라 편웨이로 표했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이 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A교수는 잘못된 것 이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우리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 등으로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강의는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배우는 학문이고,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 했다. A교수와의 전화 인터뷰 후에 도 해당 강의 시간에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의 추가 제보는 계속 이어졌다. 앞서 제보한 B학생은

는 발언을 했다"면서 "학내에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많은데, 해당되는 학생들은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얼마나 반발심이 들겠는가"라며 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이 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A교수는 잘못된 것 이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우리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 등으로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강의는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배우는 학문이고,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 했다. A교수와의 전화 인터뷰 후에 도 해당 강의 시간에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의 추가 제보는 계속 이어졌다. 앞서 제보한 B학생은

일주일 후 추가 제보를 통해 "A교수가 강의시간에 '애들이 숙제를 안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 못 대들게 만들어야 한다', '자녀의 기를 꺾는 역할은 부모가 하는 것', '아이는 미리 두들겨 패고, 밟아놔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오며, "(이런) 교수님이 우리학교 교수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후마 배분이수교과에서 현재 진행 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그 동안 우리학교에서, 그리고 대학가에서 수차례나 벌어져왔던 유사 사례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 그리고 이 유사 사례들 모두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찰'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관련기사 4-5면으로 이어짐

##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 공동체

###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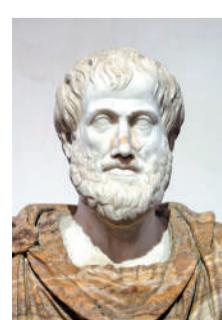
우기동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대학의 시민교육은 왜 사회적 주체로서 시민의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왜 '공동체'에 관해 고민해야 하는가? 사회적 관계는 '나(인간, 개인)'라는 존재의 '삶의 관계'이며, 사회는 '나(인간, 개인)'라는 존재의 '생활의 세계'이다.

나와 사회의 관계는 철학자 헤겔의 말마따나 곧 '나인 우리, 우리

인 나'라는 공동체적 의식의 토대요, 공동체적 삶의 기초다.

그렇기에 나와 사회는 통일적으로 연관·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며 사회적 동물이다.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소통에 의한 자유로운 인간들의 합리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인간의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로 표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적 동물(소통)이고, 또 언어를 매개로 이해관계와 갈등을 풀어가는 정치적 동물(공감)이며, 이러한 소통과 정치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공존)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삶의 관계

나 생활의 영역과 연관해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명공동체(민족), 인류공동체, 교육공동체, 경제공동체(일자리),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가족공동체, 학교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의 상대적 단위인 공동체는 우리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생활공간이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o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p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u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g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전문가 칼럼

국제대학 박한규 학장

창의적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 ▶7면



## 시선

## 사설

## 무엇을 더 잃고 나서야 본질을 지향할 것인가

- 지난 18일 전국교수대회를 보며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 대학교수 천여 명이 모여 '고(故) 고현철 교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열었다. 우리사회 지성의 첨단이자 학문의 첨병인 교수가 천여 명 단위로 모인 것 자체로도 이미 이례적인 사태지만, 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외쳤다는 것은 상아탑을 둘러싼 작금의 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난 달 17일에 '총장 직선제 무력화'에 항의하며 부산대학교 교내에서 투신한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고자 전국 80여개 대학에서 모여든 교수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에 힘입어 전국의 대학은 1991년부터 총장 직선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국공립대에 대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며 총장 직선제 폐지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간선제를 도입한 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구성원이 선출한 총장 후보에 대해 인선을 거부하기도 했다.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 누구를 앉히느냐'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논의의 본질은 결국 '교육부의 과도한 대학 운영 개입'이다. 모든 대학은 각 대학이 표방하는 가치와 교육철학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책과 입맛에 맞도록 대학을 길들이는 사이에, 대학 간의 변별적인 가치와 철학은 점차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교육부가 지정한 각종 지표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상아탑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각 대학들이 저마다 지향하는 바를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고 중앙 일보 대학평가나 조선일보-QS 대학평가 같은 캠퍼스 외부의 수많은 대학평가가 난립하며 대학에 각종 정량적 지표를 일률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이 수많은 정책과 지표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는 동안 대학 본연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한국 대학사회를 덮치고 있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당연하게도, 우리대학은 우리대학이 표방하는 가치와 교육철학을 지닌다. 하지만 대학이 응당 가져야 할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요소가 망실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학의 미래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교육부의 손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대학의 진정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할 때다. 외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스스로의 모습을 맞춰가는 것은 지성의 상아탑이 지향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부산대의 한 지성은 자신의 목숨 값으로 작금의 세태에 경종을 울렸다. 정부는, 그리고 대학은, 무엇을 더 잃고 나서야 지금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 총학, 자치회비 감사

## 확대 시행 예정

미디어 여론동향 2015. 9. 14 ~ 9. 30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지난 18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전자정보대학에서 경희-삼성 어울림 협약·산학협력 본격 시동/대학주보 온라인, 2015.9.22) 본 행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경희대-삼성전자 산학 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협약식에서는 산학 협력 공동연구 주제를 담당할 교수와 삼성전자 실무진이 모여 향후 공동 연구과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 내용은 지난해 논의된 사항인 ▲산학협동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삼성전자 DS(Device Solution)부문 임직원 ▲삼성전자 실습기자재·장비 기증 ▲삼성전자 임직원



## 이주의 주제 - 총여, 생공 오남용 통계 발표

## 합의를 통한 생공 제도개선에 힘써야

최재원  
(정기자)

영국의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을 인용해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을 남겼다. 통계가 잘못 이용됐을 때 발생하는 착시효과나 진실을 호도하는 문제를 잘 꼬집은 어록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총여학생회(총여)의 '생리공결제(생공) 통계' 논란을 두고 꼽씹어볼 필요가 있는 말이다.

총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생공 통계를 청운관 앞에 게시했다. 총여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생공의 남용 사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총여가 생공의 '당위'를 위해 제시한 통계가 도리어 문제를 키웠다.

우선 조사대상이었던 생공을 1회 이상 신청한 경험이 있는 총 2,975명 중, 1회 이용자 1,714명과 4회 이용한 80명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았다. 단과대학 별 이용자 수와 총 신청횟수만 제시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축제기간과 샌드위치 휴일 등에 신청한 생리공결제도만 오남용 사례로 집계됐다. 오남용 사례를 모두 포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

리통으로 인해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를 오히려 오남용 사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총여 금 회장 역시 "안타깝게도 자신의 공강일에 맞춰 연이어 사용하는 등의 오남용 사례를 모두 집계해 수치로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지를 펼하할 생각은 없다. 생리라는 사적영역에 대한 조사였던 만큼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해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가 취지나, 노력 등과 관계없이 생공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이다. 한계가 분명한 통계를 무리하게 공개했다는 비판과 여기에서 파생한 생공 자체에 대한 평소의 불만만 쏟아져 나왔다.

지금과 같은 성대결, 혹은 혐오발언 등이 주도하는 생공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수다. 올해 초 총여는 여성의 일반적인 생리주기를 고려하여 가령 5월 28일 신청자가 6월 2일에 또 다시 생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을 기획했던 바 있다. 그러나 생리기간으로 인해 월말과 월초에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 등의 문제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총여는 '제도개혁'에서, '인식개선'으로 활동방향을 틀었다. 의미가 없진 않지만, 인식개혁만으로는 신입생이 들어오고 졸업생이 떠나는 우리학교 공동체의 기본적인 특성만 감안해도 밀 빠진 독에 물 븕기에 지나지 않는다. 완벽한 제도개혁을 이루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다음 총여가 생공 제도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

제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 운영 중 핵심에 해당하는 '산학협동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학교는 향후 3년간의 연구진행을 목표로 각 학부별 사업부와 밀착 개발에 돌입한다. 산학협력단 조민형(전자·전파공학) 단장은 "삼성전자와는 처음 시도하는 이공계열 산학협력인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며 "학생들에게도 경력과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제 3차 확대 운영위원회(학운위)가 열렸다. ("자치회비 회계감사 확대 시행을 통해 신뢰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대학주보 온라인, 2015.9.23) 학운위에는 성원 108명 중 61명이 참석해 ▲총학생회 방중 활동·결산 보고 ▲총학생회 2학기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47대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2학기 자치회비 분배율 심의 및 의결 ▲특별기구 결산보고가 이뤄졌다. 총학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생회가 자치회비를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학생회의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 '있는 것도 못 써먹는' 학교가 부끄럽다

## 세시봉



이시은 (뉴스팀장)

지난 18일 국제캠퍼스에서 열렸던 삼성전자와의 산학협력 협약식은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동연구 논의 후 산학협력단 측은 '학교 소개'를 시작했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QS대학평가부터 우리학교 공학계열의 연구진들까지 매번 학교가 자랑하는 '주요 항목'들이 소개됐다. 그리고 이어진 빼아픈 농담은 실로 낮부끄러웠다. "우리학교 공학계열이 좀 안 좋다고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등학생' 때문에 (인식이) 그렇습니다"

위 이야기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학교 공학계열의 '이미지' 문제를 짚은 것이다. 1969년 시작한 우리학교 공학계열은 규모나 연구역량에서 각종 대학 평가의 7-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시수준과 진학률 또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분명 학교가 주장하는 '내실과 수준'은 거짓이 아니다. 하지만 학교의 기대만큼 사회가 우리학교 공학계열을 봐주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봄야 한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사항들이 필요하다. 교수의 연구역량, 학교의 시설 인프라, 교육에 관한 비전 등의 구체적 제반조건들이 그런 '요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설사 우리학교가 이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결국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학생들은 사회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대학을 보는 눈인 '이미지'는 위 협약식에서 언급됐던 '입시생의 시각'을 포함해 기업이 졸업생을 보는 '기업의 시각', '학계의 시각' 등 다양한 사항들이 종합돼 형성된다. 하지만 일부 사항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처는 미흡한 수준이다.

하나의 캠퍼스임을 표방한 지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대형 학원가와 입시 포털사이트는 하나의 학교로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몇몇 대학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통용되는 일부 교육기관 배치표에선 여전히 학교가 발표한 최종합격자 성적 자료에 크게 못 미치는 과거의 점수를 표기중이다. 학교 홍보대사 단체 역시 고유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을 따로 덧붙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가 방관하는 사이 이미지의 '빈틈'들은 기존의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결국 향후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미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협약식의 연이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중 응용과학계열과 디자인·공학계열 등 응용학문 위주의 학과가 분포돼있다는 설명이 오가자, 자리에 있던 임원들 중 다수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전체 인원의 절반 가량이 공학계열인 국제캠퍼스 명칭이 왜 '국제'인지, 이에 대한 인식개선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 또한 학교는 찾아내야 할 것이다. 명확한 이원화·특성화의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면 향후 발전과는 관계없이 우리학교 공학계열의 '이미지'는 그날의 협약식처럼 영원히 그대로일 것이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합의 없는 교수의 ‘일방적 주장’ 학생과의 갈등

## 교수의 발언 허용 범위

권윤지 기자 happitice2@knu.ac.kr  
김규래 기자 rlarbfo41@knu.ac.kr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풍경이 주기적으로 문제로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여러 차례의 논란이 대학가를 달궜다. 먼저 지난 6월 4일에 부산대학교 철학과의 최우원 교수는 교양과목인 ‘과학 철학’ 수업시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우리학교 생명과학대학 김세영 교수가 ‘생물2’ 수업에서 이메일을 통해 ‘역사 다큐멘터리(백년전쟁-이승만의 두 얼굴)과 일본 아사히TV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슬픈 테러리스트의 진실)’을 시청하고 영상에 대한 생각을 작성하라’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과하며 역시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정안기 연구교수가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고 몇 달만 일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삯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남은 것”, “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 “일제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유사한 ‘사건’들이 대학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시간에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바를 학생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수업시간에 교수와 학생 간에는 어떠한 역학관계가 형성되는가?

## 고리무는 교수의 사적 견해 강요

### 대학의 관리감독 책임없나

‘합의를 통한 사회 지배’를 일컫는 ‘헤게모니(Hegemon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다. 『옥중수고(Prison Notebooks)』에서 그는 계급들 간의 관계, 특히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에 발생하는 ‘통제’의 관점에서 이 ‘헤게모니’라는 용어를 설명했다. 진부한 인용이지만, ‘두산백과’는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가 “한 계급이 단지 힘의 위력으로써만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



교수는 평가와 학점을 무기로 학생을 ‘피지배계급’으로 거느린다

**대학가에서 파문을 일으킨 사례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공교과목 시간에 강의계획표와 무관한 내용으로 벌어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벌어진 경우다**

의 조직망 속에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X와 Y라는 두 대상을 상정할 때 헤게모니란 X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Y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학교의 수업시간에 대입해보자. ‘입학’과 ‘수강신청’이라는 계약, 동의절차를 통해, 특정한 수업의 수강생들은 ‘교수자’로서의 권리와 주당 세 시간 가량의 수업시간을 ‘경희대학교’에 속한 ‘특정 교수’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하게 된다. 따라서 수업시간 중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일종의 ‘헤게모니’ 역학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정 수업시간의 역학관계에서 ‘지배계급’의 지위를 갖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수자, 즉 교수다. 교수는 평가와 학점을 무기로 학생을 ‘피지배계급’으로 거느린다. 종속집단인 학생이 이러한 구조적 맥락-즉 교수의 가르침에 최대한 따라서 교수로부터 좋은 학점을 얻는다는 ‘강의의 메커니즘’-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상식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수업 시간의 이와 같은 헤게

모니는 성공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을 의미적으로 내포한다. 이는 수업시간의 교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학생에게 있어 교수는 개념적으로 ‘공경해야 하는 인생의 선배이자 스승’이라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을 장착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특정 수업시간에 그 담당교수는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i) 암묵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의 ‘지배자’이자 ii) 학점이라는 수단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평가자’이며 iii)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우월자’가 된다.

학생이 수업 도중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주장, 지시, 요구 등에 직면했을 때 이것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조적으로 피지배계급의 위치에 놓인 학생은 교수에 대해 사실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삼중의 제약 속에 둑여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의 헤게모니에서 ‘지배권’을 인정

받는 주체가 관습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교수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교수는 언제나 ‘학점’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양도한 학생들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는 자유는 오직 정당한 교수법에 의거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 강의계획표와 무관한 강의

#### 당혹·혼란 빚게 돼

‘교수의 일방적인 사적 견해 강요’로 올해 대학가에서 파문을 일으킨 사례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이 사례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공교과목 시간에 강의계획표와 무관한 내용으로 벌어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벌어진 경우다.

전자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특정 수업시간의 역학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절차의 전제가 되는 강의계획서다. 수강

## 서울캠퍼스 2015-2 사회봉사과목 이수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이수 과목 “사회봉사1,2,3” 강좌의 학점이수시 공지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적용대상	- 2015-2학기 현재 사회봉사 1, 2, 3을 수강신청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03학번 포함)이전 학생은 별도로 문의)
과목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단계별 이수)
이수구분	자유이수(2016학년도부터 자유선택으로 변경)
학점체계	1학점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정되는 봉사활동 기관 검색 및 선정 ⇒ 사회봉사활동 ⇒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설문지 작성) ⇒ 정해진 기간 내 제출
※봉사 인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65(원봉사포털) <a href="http://www.1365.go.kr">www.1365.go.kr</a> [안전행정부 산하]</li> <li>-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a href="http://www.vrms.or.kr">www.vrms.or.kr</a>) [보건복지부 산하]</li> <li>-서울동행프로젝트(<a href="http://donghaeng.seoul.kr">http://donghaeng.seoul.kr</a>) [서울시]</li> </ul> </li> <li>봉사활동 확인서는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출력해 온 것만 인정됨.</li> <li>● 교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교육원 한국어도우미, 입학관리처 모교방문단,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프로그램, 학생지원체계경희봉사단, 입학신도우미,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자연재해 복구활동, 장애학생지원센터, 교내 캠페인, 경희부속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자연사박물관 내 자원봉사, 경희의료원내 자원봉사, 후마니티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실천활동단, 글로벌센터(FCF 한국어도우미)</li> </ul> </li> </ul>
봉사활동인정기간	2015. 3. 1 ~ 제출일 전까지 활동한 실적
서류제출기간	2015. 11. 16(월) ~ 2015. 11. 27(금) 오후 5시 30분 마감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정시간 : 32시간 이상(32시간 이상도 1학점만 인정)</li> <li>2.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li> <li>3. 현학증은 1장당 4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단, 봉사인정기간(직전 학기 + 수강 신청 학기) 동안 최대 2장(총 8시간) 까지만 인정 가능함.</li> </ol>

지구사회봉사단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p>※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아래 경우에 유의해 하루에 한 헬(4시간)과 다른 봉사 기간을 한 경우, 총 11시간이 되므로, 3시간은 제외하여 계산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재학, 휴학, 복학에 상관없이 2015. 3. 1일 이후에 한 봉사활동부터 인정</li> <li>5. 한국어도우미는 서류제출기간 전 지구사회봉사단에서 국제교육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대상자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번 학기에 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6. 모교방문단은 재학 중 회만 학점인정 가능</li> <li>7. 교내 봉사의 경우 봉사 확인서는 활동 일자별로 시간을 기입하여(일 8시간 이내) 소속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원본디자인을 위해 원본을 꼭 지참)</li> <li>8. 교내봉사는 반드시 인터넷봉사프로그램, VMS, 1365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상세내역”으로 “전체출력”, 봉사 기관별로 개별 발급 X)</li> <li>9. 사회봉사 제출 서류(학점이수신청서, 활동확인서, 결과보고서, 설문지) 양식은 사회봉사 커뮤니티(<a href="http://club.knu.ac.kr/khusge">http://club.knu.ac.kr/khusge</a>)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li> </ol>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과목은 P / F 과목입니다.</li> <li>2. 사회봉사 과목은 연간체계 학점에 포함 되지 않음.</li> <li>3. 2014-1학기부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F를 받았을 시 성적에서 자동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점에는 영향없음)</li> <li>4. 2004학년 ~ 2010학년 학생이 사회봉사 1을 이수할 경우 문화체계지도자(영어: Head of Program)로 인정되는 것은 2015학년도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후마니티스칼리지에 문의바랍니다.</li> </ol>

-사회봉사커뮤니티: <http://club.knu.ac.kr/khusge>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 <http://khgsc.knu.ac.kr>  
※ 기타 문의사항: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학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4 / e-mail: [leehw53@knu.ac.kr](mailto:leehw53@knu.ac.kr)(이현호)

## 진짜 나를 만날 시간



내 안의 감정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면?  
사람들과 공감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공감훈련 집단상담은 자신을 이해하고 나와 남을 공감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15. 9. 24 ~ 11. 19 (매주 목/ 총 8회) 오후 3시~5시

장소 | 청문관 1층 학생생활연구소

인원 | 선착순 10명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02-961-0207

\*증간고사 기간 10/22은 모집일을

신청방법 | 청문관 1층 학생생활연구소

인원 | 선착순 10명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02-961-0207

\*증간고사 기간 10/22은 모집일을

신청방법 | 청문관 1층 학생생활연구소

인원 | 선착순 10명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02-961-0207

\*증간고사 기간 10/22은 모집일을



## 기획

#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공존할 수 없다’

(동연 회칙 11장 98조 4항)

## 구체성 없는 동연 회칙, 새 동아리 막는 ‘진입장벽’

### 모호한 중앙동아리 회칙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국제】 중앙동아리연합회(동연) 회칙 중 일부 조항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항목은 11장 98조 4항의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본회에 공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사용돼오다가 지난 2013학년도부터 정식 조항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연의 중앙동아리, 가등록 심사는 구체적인 조항에 의한 심사가 아닌 동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를 담당하는 협의체인 동연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대표들과 동연 사무국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동아리의 구성원이 분과장 신분으로 가등록 심사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왔다.

문제는 ‘같은 성격’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결국 동아리의 동연 입회 여부를 해당년도 대표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4월 파티플랜동아리 ‘KickinHybrid(키킨)’은 동연 측으로부터 중앙동아리 가등록 심사에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동연 측은 “목적이 겹치는 기존 동아리인 ‘HAMA’가 존재해 신규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키킨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결국 규정에 없던 의사결정 절차인 ‘재논의’ 과정을 거쳐 이들을 등록시켰다. ‘키킨’의 박강훈(산업 경영공학 2009) 전 회장은 “과거부터 동연 회칙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동아리들이 중앙동아리를 신청할 때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 동연 중앙동아리 가등록 심사 명확한 ‘규정’보다 ‘주관성’의존

이에 대해 동연의 유매연(환경학 및 환경 공학 2013) 회장은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금년도에는 협의체 구성원 모두 공정한 심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하며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차후에는(내년도 회장이 바뀌면) 판단기준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성이 없는 회칙에서 비롯된 이 같은 사태는 최초 중앙동아리연합회 설립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84년에 한 중앙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졸업생 A씨는 “학생회관이 준공되기 전까지 ‘중앙 썸블’이란 이름으로 교내에 존재하던 동아리들 간의 연합이 자치 공간 확보 이후 옮겨오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때 동아리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 항목별 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동아리를 대상으로 ‘중앙 썸블’ 내의 동아리를 동연 구성원으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최초부터 ‘봉사’나 ‘종교’ 관련 동아리들이 중복 성격을 가졌던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에 대해 “2013년도 회칙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부 동아리들 간의 성격 정리가 완료됐다”며 “현재는 동연 내에 성격이 겹치는 동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동아리는 음악선교, 체육선교 등으로 구별되고 봉사동아리 역시 여성관련 봉사, 고아관련 봉사 등 세부 사항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이런 흐름에 대해 ‘이미 동연에 등록된 기존 중앙 동아리들에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성을 띤 조항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논란’은 당분간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강학점 취소기간’, 일주일이면 충분?

### 수강학점 취소기간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과 정정기간이 끝나면, 신청한 강의를 취소할 수 있는 ‘수강학점 취소’ 기간이 시작된다. ‘수강학점 취소’는 ‘학점포기’와 달리 강의를 다듣기 전에 수강을 포기하고 학기말 성적이 나올 때 해당 강의의 성적이 기입되지 않는다.

‘학점포기’제도는 과목을 이수해 성적까지 부여받은 후, 만약 해당 학생이 성적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해당과목 자체를 삭제하는 제도다. 학점포기 제도는 졸업 전 최대 6학점까지만 포기할 수 있고, 이전보다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돼 ‘수강학점 취소’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반해 ‘수강학점 취소’는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수강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매우 간편하다.

### 수강학점 취소기간 타 대학 비해 짧고 조건 엄격

현재 우리학교의 수강학점 취소기간은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동안 신청한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해당 과목을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언뜻 보면 충분히 강의를 들어본 후 보다 원하는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기간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강의 수강 인원이 적어서 폐강 위기에 놓이거나 15학점 미만인 경우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 정정기간과 수강학점 취소기간을 합친 2주 동안 수업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수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강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2번의 수업만 듣고 결정해야 하는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의명을 요구한 A학생은 “정정기간 때 해당 강좌를 담지 못한 경우 1~2번 수업

을 듣고 계속 들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1주일은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B학생은 “오리엔테이션 때는 몰랐지만 몇 번 들어보니 신청한 영어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취소하고 싶었다”라며 “하지만 취소할 경우 15학점 미만이여서 결국 학점포기를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점포기’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짧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도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수강학점을 취소하면 차기 학기에 3.9 학점을 넘어야 추가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다.

우리신문이 서울 주요 대학의 수강신청 기간, 조건, 불이익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대학 6군데 중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수강신청학점 취소 가능기간이 한 달에서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취소 신청 가능 조건과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학교도 있었다. 서강대에 재학중인 C양은 “학생이 신청한 수업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강의계획서만으로 확인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사실상 개강 이후 1주일 동안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많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과 측은 “개강 이후 2주 동안 출석부가 확정되지 않아 수업 분위기나 팀별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주일도 길다고 말씀하시는 교강사 분들도 있다”며 “오랫동안 토대를 닦은 제도이고, 현재 최상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강학점취소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학사지원과 측은 “이미 불이익 없이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정정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 강의를 듣고 싶었던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 때문에 수강학점 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명	기간	불이익
경희대	정정 이후 1주일	학점 아월 및 초과 수강신청 불가 / 졸업유예자 등록금 환불 불가
성균관대	개강 달의 마지막 주 동안	학점이월 불가 / 등록금 환불 불가
중앙대	개강 달의 마지막 주 동안	없음
이화여대	개강 달의 마지막 주 동안	없음
연세대	개강 한 달 후 3일간	없음
서강대	정정 이후 1달	없음
서울대	중간고사 이전	없음

**V.O.U 소개**

V.O.U는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라는 이름의 V.O.U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

**The University Life**

**Traditional Markets Reviving and Growing**

At 4 a.m., before the sunrise, all the merchants are awake and busy preparing for the start of their business at Noryangjin fisheries ...

**Kyungheeian**

How Tough Is Your Military?

**KHULife**

Housing • No Contents.

Place • No Contents.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의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퍸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 개의 해외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경희대학교 대학생 활사**



## 스포츠 / 문화

# ‘함께 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 34회 세계평화의 날 맞아 ‘평화주간, 명박수여, 좌담회’ 열려

〈명예 박사 학위〉

### 피스바 페스티벌 2015

김예준 기자 00179jun@knu.ac.kr  
최재원 기자 jankin1997@kn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34회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세계평화의 날’은 지난 1981년 6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총회에서 당시 의장직을 맡고 있던 우리학교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UN으로 하여금 세계 평화의 날 및 세계 평화의 해를 제정·공포하도록 제의하자’고 건의한 이후, 1981년 11월 제36차 UN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공식 제정된 기념일이다.

‘세계평화주간’을 선포한 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테러, 원자력 문제와 같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캠과 국제캠 각각 16, 17일 세계평화주간 선포식

이번 선포식은 후마가 준비한 세계평화주간 행사 소개와 ‘평화의 풍선 날리기’, ‘선포식 공연’으로 구성됐다. 이어 이문재(후마니티스칼리지) 교수가 ‘평화만이 평화로 갈 수 있다’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하며 세계평화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포식은 음악대학원 송덕일·성명은 듀오의 ‘넬라판타지아’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선포식에 참여한 원경준(경영학 2011) 군은 “우리학교에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있는 줄 몰랐다”며 “우리가 날렸던 풍선에 담은 기대처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유 학장은 “학생들이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른 지식인으로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내년에는 후마위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행사를 주관해 더욱 보람찬 행사가 되게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우리대학에서 故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에 명예 평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본 수여식은 ‘Peace BAR Festival 2015’의 일환으로,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됐다. 故 바



지난 16일 세계평화주간 선포식에 참가한 구성원들이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풍선을 날리고 있다

출라프 하벨(Va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의 동생인 전 카렐대학 이론연구소장 이반 하벨(Ivan Havel) 교수가 대리로 수여했다. 故 바츨라프 하벨(1936~2011)은 ‘프리하의 봄’을 쓴 극작가이자 ‘벨벳 민주혁명’을 주도한 반체제 지성인이다. 우리대학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른바 ‘반정치의 정치’를 실현한 그의 업적을 높이 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

#### 명예 평화학 박사학위 수여

수여식에 앞서,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는 UN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상이 상영됐다. 그 외에도 토마시 후사(Tomas Husak) 주한 체코 대사, 체코 카렐대학교 마르틴 부트나(Martin C. Putna)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체코 국립 음악대학과 우리학교 음악대학의 협연으로, 체코의 국민영웅 안토닌 드보르작의 2악장 월츠가 연주됐다. 뒤이어 故 조영식 학원장이 작사하고 박태준 작곡가가 작곡한 〈목련화〉 제창을 끝으로 식을 마쳤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세계 평화의 날 기념 특별좌담회’가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정윤찬 전 서울대 총장과 고려대 염재호 총

장, 우리학교 조인원 총장이 패널로 참여해 약 3시간 동안 ‘대학의 미래, 정치의 미래: 21세기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 염재호 총장 “학생 방목하고 있는 지금의 명”을 주도한 반체제 지성인이다. 우리대학은 반성해야 한다〉/대학주보 온라인, 2015.09.24.〉

#### 세계평화의 날 기념특별좌담회 대학의 사회적 책무 토론

토론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의 현 위치를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 패널은 ‘대학은 사회적 문제들에 경고음을 발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이 사회적 지식인의 육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염 총장은 “대학은 더이상 사교육을 통해 잘 만들어진 학생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 다양한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며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방목하는 것은 좋은 대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설립 이념이나 가치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개인의 이익과 가치도 좋지만 공동체에 협신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학교 농구부, ‘2015 대학농구’ 3위

### 김현국 감독 “플레이오프 준비 매진할 것”

#### 2015 대학농구리그 결과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nu.ac.kr

우리학교 농구부가 24일 열린 고려대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3위가 확정된 상태였다. 고려대 또한 2위인 연세대에 상대 전적에서 앞서기 때문에 우리학교와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우승을 확정된 상태였다. 고려대는 이날 경기에서 국가대표 차출로 이종현, 문성곤, 강성재 선수가 결장한 채 나머지 멤버들로 경기에 임했다.

대회 내내 괴롭히던 낮은 슛 성공률이 결국 최종전인 이날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았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학교의 3점슛 성공률은 21%로, 총 세 번 성공에 그친 반면, 고려대는 3점슛으로 총 9번 득점에 성공했다. 또 자유투 성공률 또한 50%에 그쳐, 80%를 기록한 고려대에 비해 크게 뒤졌다.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도 밀린 우리학교는 리바운드에서도 열세를 보이며 승리를 내줬다.

지난 14일 선두를 달리던 고려대가 예상치 못하게 건국대에 패하면서, 우리학교는 남은 일정인 조선대전, 동국대전, 고려대전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우승을 노려볼 수 있었다. 15일에 열린 조선대

#### 〈이번대회 우리학교 경기 결과〉

일시	상대	결과
3월 23일	연세대	71-57 승
3월 31일	성균관대	66-56 승
4월 7일	건국대	79-67 승
4월 13일	상명대	69-58 승
4월 27일	단국대	75-65 승
5월 4일	연세대	66-70 패
5월 13일	상명대	73-58 승
5월 19일	건국대	79-71 승
5월 27일	성균관대	75-56 승
6월 3일	단국대	61-58 승
8월 28일	한양대	65-64 승
9월 1일	중앙대	74-92 패
9월 8일	명지대	70-58 승
9월 15일	조선대	67-61 승
9월 21일	동국대	90-93 패
9월 24일	고려대	61-67 패

의 경기에서는 무난하게 승리했지만, 21일 동국대와의 경기에서 90-93으로 아쉽게 패하며 우승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회의 부진은 주력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생긴 전력 손실의 탓으로 보인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커 아쉬움이 크다”며 “다가올 플레이오프 경기를 위해 리바운드와 박스아웃 연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를 3위로 마감한 우리학교는 오는 10월 6일부터 한양대와 중앙대 전의 승자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루게 된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nu.ac.kr

<http://media.knu.ac.kr/khunews>